

광주시체육회장 직무 정지… 컨트롤 타워 장기 공백 우려

광주지법, ‘선거인단 정족수 미달’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시체육회 허술한 행정 혼란 초래 … “권한대행 선임 대응책 마련”

광주시체육회가 컨트롤 타워 부재라는 약재를 만났다. 보궐 선거로 선출한 체육회장이 취임 2개월 만에 직무정지 됐다. 체육회가 선거행정을 허술하게 처리한 탓에 회장의 직무공백을 불러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법원의 직무정지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전이 전개되면 회장 업무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돼 현안 차질도 우려된다.

◇회장 장기공백 우려=이상동 시체육회장의 직무가 지난 16일부터 정지됐다.

법원이 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 광역자치단체 체육회장의 직무집행 정지 결정을 내린 것은 민선 체육회장 시대 들어 처음이다.

18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1부(심재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광주시체육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전갑수 광주시배구협회장 등이 이상동 체육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체육회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가처분신청은

긴급을 요하는 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당선무효 확인 소송(본안 소송) 판결 확정 시까지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 회장은 회장으로서 직위는 유지하되 직무는 지난 16일부터 정지됐다.

재판부는 전 회장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2건 가운데 ‘광주시체육회장 선거에서 광역시 체육회에 해당하는 광주시체육회가 300명 이상 선거인단을 구성해야 하는데, 282명으로 꾸려 규정된 정족수에 미달했다’는 내용을 인용했다. 정원을 지키지 않아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 것이다.

다만, 전 회장측이 제기한 또 다른 가처분 신청의 하나인 ‘승인 대의원 조항’은 인용하지 않았다.

이상동 회장과 시체육회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 항소절차 진행, 본안 심판을 구하는 소송 제기 여부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

려졌다. 이 회장의 임기는 2023년 1월까지여서 소송전이 장기화하면 자칫 차기 회장을 선출해야 하는 시기까지 다툼이 이어질 수 있다. 재판부가 (본안 소송) 판결 확정까지 직무를 정지했기 때문에 이론상 대법원까지 재판이 가는 상황도 가능하다.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5월13일 김창준 회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하자 선거를 치러 이상동 후보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체육회장 선거 낙선자들은 불과 22표차로 당락이 갈린 선거에서 46명에 달하는 무자격 선거인들이 투표했으며, 사전 선거운동, 체육회 직원의 선거개입 의혹, 부정선거를 문제 삼아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체육회의 아마추어 행정=광주시체육회는 사실상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 기본적인 선거인수를 지키지 않아 선거 공정성 및 객관성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결국 ‘허술한 체육행정’ 때문에 회장 당선인은 물론 선거 출마자 모두를 피해자로 만든 셈이 됐다.

재판부는 “선거인 282명 중 274명이 투표에 참여해 전갑수가 110표를, 이강근이 32표를, 이상동이

132표를 득표해 당선자와 전갑수의 득표 차가 22표에 불과한 점에 비춰볼 때, 이와 같은 방식으로 315명(중복단체 최소 210명+구 체육회 최소 105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구성했다면 선거의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하자가 이 사건 선거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선거인수 배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광주 인구는 약 150만명이므로, 선거관리규정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최소 300명 이상으로 선거인수를 구성해야 한다”는 낙선 후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시체육회는 이번 선거에서 당초 300명 이상의 선거인수를 구성했다가 중복단체에 배정하는 선거인(대의원) 일부가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자 이들을 선거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선거인수를 300명 이하로 임의 조정·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 회장측 변호인은 “시체육회에서 300명 이상으로 선거인수를 결정한 뒤 부득이 인원배정 과정에서 이를 지킬 수 없게되자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시체육회는 애초 선거를 치르기 전부터 선거인수 배정을 놓고 참정권 제한, 불공정 선거 논란을 불렀다.

일부 중복단체 대표들은 지난 4월 “갑작스럽게 실시되는 보궐선거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는 선거인단 배정 기준으로 육성팀 대표들의 참정권이 박탈당했다”며 체육회와 회장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했다. 광주시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도 “광주시체육회장 보궐선거 선거인단 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며 사퇴하는 등 파문이 일었다. 뒤늦게 시체육회와 선거위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뒤늦게 선거인수를 조정하기도 했다.

사전선거-금품제공 의혹과 시체육회 직원들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등도 문제가 됐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체육회가 혁신을 넘어 환골탈태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절감했다”며 “최대한 빨리 회장 권한대행 임명 절차 등을 을 진행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예성, KLPGA 투어 생애 첫 우승



전예성이 18일 경기 양주 레이크우드CC에서 열린 ‘에버글라겐 퀸즈크라운 2021’ 최종라운드 우승 후 셉터에 입 맞추고 있다. /연합뉴스

KIA, 폭염에 낮 12시 연습경기 … ‘두산·NC발 코로나 사태’로 낮선 경험

KIA 타이거즈가 ‘두산·NC발 코로나 사태’로 낮선 경험을 하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KIA는 18일 창원에서 NC와 전반기 마지막 경기를 치러야 했다. 하지만 KIA는 이날 폭염에도 오후 12시에 자체 연습경기를 치렀다.

‘코로나 사태’로 리그가 1주일 먼저 문을 닫자 KIA는 부라부라 연습경기과 훈련 일정을 마련해 지난 14일 오후 6시 첫 자체 연습경기에 나섰다. 16일 연습경기를 비 때문에 치르지 못했던 KIA는 18일 두 번째 연습경기를 소화했다.

경기 개시 시간과 이닝이 낮설었다.

그라운드가 본격적으로 달궈지기 시작하는 정오에 경기를 시작한 KIA 선수들은 5이닝으로 간단히 일정을 마무리했다. 더운 날씨에도 한낮에 짧게 경기를 진행한 이유는 ‘코로나19 검사’ 때문이었다.

KIA는 지난 11일 옷지 못할 황당한 일들을 겪었다.

식당에서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포수 한승택이 엔트리에서 빠지게 됐고, 경기 개시 직전에는 김민식이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두산발 코로나가 원인이었다.

지난 4일 두산전에서 포수로 선발 출전했던 김민식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면서, 휴식날을 보내고 있던 이정은이 급히 경기장으로 달려왔다.

우여곡절 ‘고졸 루키 베테리’ 이의리와 권혁경으로 이날 경기를 풀어나간 KIA는 극적인 2-0 승리로 7월 6연승을 이었지만, 경기가 끝나고 다시 한 번 헛웃음을 지었다.

문제가 된 4일 두산전에서 1루수로 나섰던 류지혁도 뒤늦게 밀접접촉자가 되면서 승리 세리머니를 하는 도중에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정상적으로 경기를 했을 뿐인데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된 선수들은 다행히 18일 검사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능동감시 대상자가 돼 살얼음 위를 걷던 KIA 선수단 전원도 이날 다시 PCR 전수 검사를 받아야 했다. 검사 시간을 맞추느라 선수들은 ‘한



KIA 타이거즈의 브룩스가 18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자체 연습경기에서 백핀 선발로 공을 던지고 있다. 이날 자체연습경기는 코로나 진단 검사 일정 때문에 오후 12시, 5이닝 경기로 진행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여름 12시 경기’라는 낮선 경험을 했다.

지난 10일 처음 코로나 검사를 받은 뒤 “뇌가 흔들리는 느낌이었다”고 웃던 윌리엄스 감독 역시 다시 한번 유쾌하지 못한 경험을 했다.

원칙대로, KBO가 자랑하던 코로나19 매뉴얼을 지키고도 두산·NC발 코로나19 사태의 최대 희생양이 된 KIA. 팬들은 노심초사 기다렸던 ‘D-데이’에 분통 터지는 사진을 접했다.

이날 잠실 구장에서 자체 훈련을 진행한 두산 선수단이 ‘외부인’을 그라운드로 부른 것이다.

외야에서는 한 베테랑 선수가 카니들이 축구공을 가지고 노는 장면이 포착됐다. 다른 선수들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역시 ‘노마스크’ 아이들과 함께했다.

두산 외국인 선수 로켓의 친동생도 이날 그라운드에서 두산 선수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코로나 이후 그라운드는 특별한 공간이 됐다.

취재진은 물론 외부인과 접촉이 많은 프런트도 선수단과는 다른 동선으로 이동하고 있고, 그라운드와 덕아웃은 ‘선수단 외 출입금지’ 지역이 된 지 오래다.

두산발 코로나 작적탄을 맞은 KIA는 18일까지 일상적으로 진행되던 인터뷰 일정도 양해를 구하면서 최대한 외부인의 접촉을 막고, 조심 또 조심했다.

정작 전력 분석원과 선수단 확진 등으로 리그 중단까지 일민 두산은 느긋한 모습으로 일찍 찾아온 ‘휴가’를 즐기는 모습이었다. 안일한 생각과 행동으로 코로나 사태를 초래해 허를 찌른 두산 선수단은 KBO리그 팬들을 우롱하기라도 하듯 다시 또 황당한 상황을 연출했다.

‘동업자 정신’을 모르는 두산의 이기주의 덕분에 KIA와 KBO리그 팬들은 속 터지는 7월을 보내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김아림·노예림 3위, 이정은·허미정 6위

LPGA 팀 경기

에리아·모리야 쥘타누칸(태국) 자매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팀 대회인 다우 그레이트 레이크스 베이 인비테이션널(총상금 230만 달러)에서 우승했다.

쥘타누칸 자매는 18일 미국 미시간주 미들랜드의 미들랜드 컨트리클럽(파70)에서 열린 대회 최종라운드에서 11언더파 59타를 합쳐해 4라운드 합계 24언더파 256타로 정상에 올랐다.

두 명이 각자의 공으로 경기해 매 홀 더 좋은 점수를 그 팀의 성적으로 삼는 포볼 경기로 치는 최종라운드에서 쥘타누칸 자매는 버디 11개를 쓸어담는 놀라운 팀워크를 과시했다.

동생 에리아는 9개의 버디를 잡아내 우승을 견인했다. 언니 모리야도 버디 4개를 뽑아내 힘을 보탰다.

에리아는 언니 모리야가 티샷을 연못에 빠트린 마지막 18번 홀(파3)에서 10m 장거리 버디 퍼트

를 꽂아 넣어 우승에 쐬기를 박았다.

쥘타누칸 자매는 같은 포볼 경기로 치른 2라운드에서도 59타를 합작했다.

에리아는 5월 혼다 클래식에서 이어 시즌 두 번째 우승이자 통산 12승째. 모리야는 2018년 휴렛-LA오픈 우승 이후 3년 만에 2승 고지를 밟았다.

이 대회 우승자는 2년의 투어 카드를 보장받고 CME 포인트와 우승 상금도 인정된다. 다만 올해의 선수, 신인상, 통계 기록, 세계랭킹 포인트 등은 반영되지 않는다.

우승 상금 55만9000달러는 두 선수가 나눠 갖는다.

6언더파 64타를 합작한 김아림과 노예림(미국)은 파자리 아난나루카른(태국)-아디티 아쇼크(인도)와 함께 공동 3위(19언더파 261타)에 올랐다. 허미정-이정은은 양희영-강혜지가 공동 6위(17언더파 263타)로 대회를 마쳤다. ‘단짝’ 박인비와 유소연, 지은희와 김효주는 공동17위(13언더파 267타)에 머물렀다. /연합뉴스



이정은이 LPGA 투어 팀 대회인 다우 그레이트 레이크스 베이 인비테이션널 최종라운드 18홀에서 버디를 잡은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